

이정숙(한국디지털대학교 언론영상학과)¹⁾

1. 서론

세계화의 물결은 정보의 이동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동을 촉발시켜 한 사회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 2000년대의 한국은 농촌이나 도시에서든, 혹은 텔레비전에서든 피부색이 다른 이웃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세계의 모습 또한 소속 국가 외부인들을 좀더 가까운 관계망 속으로 편입시킨다. 동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대중문화 현상이 된 ‘한류’에 대한 담론 또한 외부에 대한 두려움의 시선을 극복하고 외부와의 연결이 국가적 이익임을 주장한다. 한국 사회가 문화적 세계화를 한류를 통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실익을 따지는데 몰두했다면, 외부로부터의 인적 흐름으로 형성된 ‘국제결혼가정’을 포함한 ‘이산’ 현상이 기존의 가치체계나 제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 또한 한류와 같은 세계화의 한 현상이라는 사실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주류가 아닌 소수자로서 이산인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식되기 보다는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통해 가시적인 존재로 표현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 ‘국제결혼가정’에 대해 미디어들은 주목하기 시작했고, 텔레비전 제작자들은 이들의 삶을 소재로 삼아 이들을 포함한 아시아를 한국인에게 이해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텔레비전은 이들을 포함한 출신 지역과 문화, 인종에 대한 이미지를 수용자에게 구성해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암암리에 제시한다. 이러한 텔레비전의 활동은 문화적 상징인 낯선 지역, 민족, 인물 등을 재현함으로써 새롭게 편입된 소수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구성되는 소수자들에 대한 의미는 하나의 문화적 실천으로 한국 사회가 인종적, 민족적 단일 사회의 신화에서 벗어나 다형 사회로 서서히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겪는데 일조하고 있다(전규찬, 2005).

국제결혼가정이나 한국내 아시아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3년에 방영된 MBC의 오락 기획 프로그램, <! 느낌표>를 통해서 이다. 이 프로그램은 <박수홍·윤정수의 아시아!아시아>라는 코너를 통해 제1탄 아시아 노동자들의 가족상봉, 제2탄 한국의 재외이산인 고려인과 위안부 등의 가족상봉, 제3탄 한국내 국제결혼가족의 가족상봉을 다루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사회가 인적 흐름을 통해 외부 세계와 교류해온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들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처한 세계화 과정의 한 단면을 성찰할 기회를 주었다. 이후 2005년 말부터 KBS1 텔레비전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러브인 아시아>가 국제결혼가정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한국내 농촌 현실, 혼혈아동 문제, 이산인의 적응 문제 등을 사회 내적인 현상으로 살펴 볼 기회를 주었

1) iksiks@kdu.edu, 현재 이 논문은 미완성 상태이니 인용될 수 없습니다.

다.

지리적, 문화적 경계에 위치한 ‘국제결혼가정’에 대해 다층적인 의미구조를 지니고 있는 텔레비전은 생산자, 텍스트, 그리고 시청자를 연결해 주는 의미 복합체(Fiske, 1987)로써 실제 인물을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의미가 흐릿한 시청자들에게 재현하고 있다. 재현은 개념을 조직하고, 모으고, 배열하고 분류하는 새로운 방식에 관여하며, 개념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확립하는 새로운 방식이다(Hall, 1997). 재현은 반영적인 역할보다 구성적인 역할을 하며, 한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 권리, 지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재현의 속성 때문에 소수자들은 부정확하고, 부정적이거나 편견에 찬 대중적 재현에 의해 고통을 받거나 제대로 자신을 드러내기 어렵다(Pietikainen & Hujanen, 2003). 공적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통한 이산인들의 재현은 소수자들이 이 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이나 문화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텔레비전을 통한 이산인들의 재현은 다수자 혹은 주류가 소수자들의 삶에 개입하는 방식이 되거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종’의 위치를 재확인시키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구성하는 ‘국제결혼가정’의 정체성과 이들을 재현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은 이산인 소수자에 대한 의미화 작업에 관여하는 대중적이자 공적 담론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산인들의 정체성을 재현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러한 재현 방식의 사회문화적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 텍스트의 형식적 특성과 이들 텍스트에 활용된 국제결혼가정과 관련된 문화적 상징들의 특성과 서술방식을 분석하고, 텍스트에 드러난 범주화와 이미지가 국제결혼가정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 논문은 공익적 기능을 내세우며 제작된 이 두 프로그램이 이주자들에 대한 규범적 접근을 통해 계몽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주류적 시각을 생산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는 한계와 어떻게 협상하는지도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이 논문은 텔레비전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KBS1 매주 토요일 5시 10분에 방영되는 <러브 인 아시아> 2005년 11월5일부터 시작하여 2006년 4월 1일 까지 총 20회 방송분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²⁾.

분석방법은 서사분석에 기초하여 국제결혼가정을 다루는 시사교양프로그램이 하나의 이야기로써 수용자에게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수단과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밝히는 방법이다. 이야기로써 프로그램의 재현 수단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프로그

2) MBC의 매주 토요일 밤 9시 45분에 방영되는 오락프로그램 <!느낌표>의 한 코너인 <박수홍 윤정수의 아시아!아시아>에서 제3탄으로 기획한 국제결혼가정의 가족상봉기가 2005년 8월 20일부터 총 9회 방송되었다. 이 프로그램 또한 국제결혼가정을 배경으로 하지만, 혼혈아동의 외갓집 방문기가 주된 소재이기에 국제결혼가정을 전체적으로 재현했다고 보기 어려워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램의 전체적인 포맷과 진행방식, 출연자, 사회자와 패널의 위치와 역할, 재연 방식과 인터뷰 방식의 특성, 영상의 특성, 타 장르와의 상호텍스트성 등을 분석했다. 내용적 차원의 의미화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소재, 주제, 인물, 주요 사건, 배경, 가족, 활용된 문화적 상징들의 의미화 전략 등을 분석한다.

3. 국제결혼가정의 실태와 의미

한국내 ‘국제결혼가정’은 노동자의 유입과 함께 한국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혼혈인 역사에 위치하며 세계화의 빠른 흐름을 반영하는 ‘국제결혼가정’은 기존의 국제결혼 학제나 동양의 국제결혼, 혼인, 이민, 이주

말 갖는다. 이러한 방식의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세계결혼가정'이라는 새로운 인종정경(ethnoscape) (Smith, 1996).

‘코시안’이란 용어의 차별성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민족’이란 용어와 함께 2000년대의 한국 내 인적 구성을 지칭하는 용어는 ‘단일 민족’과의 차이에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맥락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혼혈인’이란 용어를 추동하는 ‘민족’이란 개념과의 관계를 맥락의 세력의 침입과 지배에 맞서고 이로부터 탈출하여 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혼혈’은 인정할 수 없다. ‘단일 민족’과 ‘혼혈’의 대립적 의미는 다분히 민족 구성원의 정체성이 유지됨을 명백히 한다(바바,

역사는 1950년대 주한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로 하고, 제2세대는 90년대 동남아 남성과 한국
한국 남성과 동남아 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코시안³⁾(Korean+ Asian)이라는 새로운 용어는
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경제와 노동 시장뿐만
의미하기도 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업된 것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기업, 변화하는
에 뒤처진 기업들의 수요와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
구분별하게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영역에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지만, 이 용어가 변질되어 ‘아시아 출신의 이민자’ 뜻으로도 쓰인다. 한국전쟁 직후의 흑인 혼혈인 또는 백인 혼혈인 등에서는 이 용어가 차별적으로 오용될 여지가 많아 이 용어

를 구할 계획의 격차 등이 있는 한 지속 세계화 과정은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국'을 한국사회에 지속시킬 것이다(Appadurai

최근의 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 태어난 나타난 ‘국제결혼가정’이란 용어는 ‘국제가혼’ 용어 혼용 현상을 지칭하는 의미화 실천이다. 이 용어는 ‘혼혈인’이란 오래된 용어의 역사적 용어의 의미 또한 한국 사회의 변화와 유무로 한다. ‘민족’이란 개념이 지속적인 외부 근대화하기 위한 약자의 유일한 무기로 강없는 현실로써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 인종적·문화적·민족적 구분에 기반하여 국민(2002).

2000년대 국제결혼가정의 뿌리인 혼혈인(출현한 아메라시안(Amerasian)을 제1세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2000년대를 일컫는 코시안이 주류를 이룬다. 이 1990년대 취업을 위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아니라 사회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체계적인 노동시장 분석과 정책에 의해 유·경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임금경쟁력이주노동자들의 현실적 이해관계 속에서

3) 이 용어는 안산의국인노동자센터에서 1998년부터 사용했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가리키는 혼혈인과 구분되는 제2세대 혼혈인을 의미한다. 일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설동훈, 2006).

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가 현상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 집단들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들과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국민의 일원으로 포함시키는 문제, 이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 등을 제기하며 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의 변화를 낳고 있다(한진수, 2003).⁴⁾

2000년대 한국의 ‘국제결혼가정’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함께 한국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한국의 이러한 현상은 국제노동분업의 일환에서 촉발했으나 한국내 도시화의 진행으로 농촌을 떠난 여성들의 성별분업을 대체하기 위해 주로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의 외국인 여성들이 혼인이민을 옴으로써 형성되었다(한진수, 2003). 매년 국제결혼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지난 2000년 1만 2319건에 불과하던 국제결혼이 2005년에는 4만 3121건으로 전체 결혼건수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 결혼한 농촌 총각 중 35.7%(2885명)가 외국인 신부를 맞이했다(문화일보, 2006.4.3). 이는 최근 10년간 추진된 농촌 총각장가보내기 운동 등의 영향으로 국제결혼이 활발해져 농촌지역(충북 보은:40.0%, 전북 무주:35.0%, 장수:28.6%)을 중심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이들 외에 국내의 공단밀집지역에서도 국제결혼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 구로구는 2003년 9.7%에서 2005년 16.4%로 경기도 안산시 6.4%에서 11.6%로 늘었다(중앙일보, 2006.4.3)

코시안을 주축으로 한 혼혈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법적·제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과 개인의 정체성 담론을 비롯한 가치와 규범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고한 단일민족 신화와 이에 기반한 문화적 가치가 작동하여 이주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타자이자 호기심의 대상으로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에 다양한 언론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들은 일반적인 사회구성원이기보다는 일탈적인 존재로서

결혼과 가족화는 외국인 노동자를 일과로만 여기고, 이들과의 결혼은 한국인의 전유물과 동일시되어 있다. 인종주의적 담론을 통해 소수자들을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한국의 자본주의 전개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값싼 임금을 합리화시키고 이들의 사회적 위치를 열등한 것으로 공식화하는 수단으로 해석된다(함한희, 1995).

최근의 ‘국제결혼가정’이 기존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담론에 도전을 제기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질서와 기존의 질서의 갈등과 동화와 같은 복잡한 지형을 나타내기도 한다. ‘국제결혼가정’은 인종적 소수성의 출현이고 이러한 소수성은 갈등적 도전 양상을 띠게 되는데, 다수적·균질적·지배적 구조에 대한 새로운 도전으로 위치하게 된다(전규찬, 2005). ‘국제결혼가정’을 비롯한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이주자들이 타자성을 지속시키느냐, 적극적으로 수용되느냐를 결정하는 변수로 섹슈얼리티가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과 자녀의 출산을 통해 혈연과 가족주의에 기초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거나

4) 2005년말 기준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74만 7467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넘었다. 이들 가운데 코시안과 아메라시안 등 혼혈인(약 3만5000여 명)과 밀입국 조선족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인 출신을 합할 경우 국내 거주 타민족 혹은 외국인 80만명(전체인구의 1.7%)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문화일보, 2006.4.3). 이들 가운데, 경제적 문제로 이주한 낙후된 지역 출신의 외국인들은 한국에 정주하려는 특징이 강해서 사실상 한국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나 마찬가지이다(문화일보, 2006.4.3).

이러한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유동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현상이 바로 이산(diaspora)이다. 길로이(1997)는 이산의 개념은 “상황구속성(contingency), 비결정성(indeterminacy) 그리고 갈등(conflict)”을 강조한다고 주장하며, 이산의 정체성은 문화적 차이점들을 가로지르는 갈등으로부터 나오는 역동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산의 개념은 후기 근대성과 세계화 시대의 초국적 정체성들과 양립할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의식을 수반하는 사회적 조건을 함의한다(Dudrah, 2002). 이산은 이주민, 그들의 정착한 후손들, 그리고 그들의 의식 세 가지가 상호작용을 드러내는 사회적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들 관계는 탄생장소, 정착장소와 의식을 가로질러 작동하고, 새로운 주체성 형성을 위한 가능성을 취한다(Dudrah, 2002). 따라서, 이산인의 정체성은 인종/민족, 국가, 계급, 언어, 문화와 역사의 미묘한 협상을 요구하게 된다(Durham, 2004). 이러한 협상과정에서의 이산은 문화적 혼성과 연계되는데, 혼성성은 항상 기존의 원천에 준거하여 차이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산 현상에 대한 논의는 새롭게 출현한 것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것이 기원한 것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다. 즉, 이산의 다중적인 위치가 내포하고 있는 고정된 좌표들, 즉 상상되고 경계화된 민족-국가들의 정체성과 권력관계에 대한 논의를 수반하게 된다(박준규, 2003). 이러한 관계에서 자신들의 기원과 관련하여 이산인들은 문화에 대한 서열화와 이분화를 토대로 한 출신 인종이나 국가에 대한 이주 사회의 태도는 물론 새로운 혼성적 형태에 대한 낮은 시선과 갈등하게 된다.

따라서 세계화의 유동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산’은 이산적 상상력과 민족주의적 상상력의 상호작용 속에서 해결책을 탐색할 수 있는 지점에 있다(윤지관, 2000). 이러한 지점에서 미디어를 통한 이미지가 유동적 정체성의 의미화 실천에 주목할 수 있다. 아파두라이(1996)는 세계의 시민들이 미디어의 이미지를 복합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상상하는데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미디어 이미지는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리얼리티(strips of reality)’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내 ‘이산’ 현상을 포함한 유동적 정체성은 끊임없는 순환과 변화의 과정에 놓이게 되며, 상징적 체계를 통해 의미를 획득함으로써 재규정되고, 따라서 미디어를 통한 재현의 방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5. 정체성의 재현에 대한 기존 연구

문화를 생산, 소비, 재현, 정체성, 규제 등의 순환적인 과정으로 볼 때, 정체성은 재현국면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재현은 우리를 주체로 위치지우는 의미화 실천과 상징체계를 포함한다. 상징체계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이 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창조한다. 문화적 과정으로써 재현은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재현 체계를 통해, 과거,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소망에 비추어 나는 누구인가를 그려낼 수 있다. 그래서 재현체계는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토대인 동시에 물적 토대가 되는데, 여기서 재현과 정체성의 긴밀한 관계가 드러난다(Woodward, 1997). 문화적이자 정치적 과정으로서 재현은 우리는 누구이며, 그들은 누구인지를 위치시키는데, 재현은 중립적이지 않고, 특정한 시각에서 생산된다. 우리를 타자에게 재현하는 것과 더불어 재현은 우리를 주체로 위치시킨다(P & Hujanen, 2003). 재현은 정의하고, 기술하고, 배제하고, 포함시키고 차이를 생산하고 유사성을 생산하는 권력을 지니므로 이러한 재현방식에서 누가 배제되고 누가 포함되는가의 문

제를 제기할 수 있다(Woodward, 1997).

정체성의 드러냄과 구성이 재현체계를 통해 실천될 때 낯선 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적 재현

은 특별한 권력관계와 애코노믹스, 도발적, 반대(무엇 1997) 이는 특정한 문화적으로 구

된 일반적인 분류체계의 의존하여 해석이나 자문, 자람을 이해하는 재현의 특정과도 관계

다. 특히 사진적 응시를 통한 리얼리티는 권력관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바라보는
위는 관찰의 대상보다 주체에게 더 강한 힘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국적인 장소의 사람
을 그린 회화 전통이나 다양한 인종들이 촬영되고 분류되는 재현 기법은 지배와 복종, 차
와 타자성의 약화를 재현하는 기능을 한다(스터르른 · 카트라이트, 2006). 홀(1997)은 권
관계를 토대로 실천되는 재현은 그것이 다루는 사람들을 정형화(stereotype)한다고 주장
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우리’ 또는 ‘그들’과 같은 이항대립적 범주로 분류된다. 특히
범화된 커뮤니케이션 체계에 의해 구축되는 문화적 차이는 이러한 정형화를 통해 의미화
천을 하기 쉽다.

최근 영상인류학자들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 자신을 재현하는지에 대한 관심
통해 정체성과 재현의 관계를 논의했다(Hughes-Freeland, 1997). 영상인류학자들은 그
사회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해 만들어진 생산물-특히 다큐멘터리-에서 타자들의 삶과
화를 어떻게 진실하게 표현하는가라는 질문 이외에 ‘그 카메라는 누구의 것이며, 영상물
누구에 의해 제작되는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인류학적으로 접근한 전통적인 원
민에 대한 필름들에도 결국 원주민들의 특수한 이해관계와 서구인들의 편향된 관심이 포
되어 일종의 전형성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Hughes-Freeland 1992). 인류학

접근한 필름에서 보이는 전형성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영상물 통해 재현된 ‘낯선
문화’가 수용자에게 여전히 실재의 반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피스케
(1987)가 주장한 것처럼 텔레비전을 통한 세계가 실재의 반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 현실을 생산해내는 관습화된 형식, 즉 특정한 영상기법이나 서사양식을 채택
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텔레비전의 영상기법 또한 일정한 재현체계속에서
적 제약을 받는다. <도전!지구탐험대>를 연구한 김영훈(2004)은 한국의 텔레비전
을 통해 우리도 이방인들을 자민족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우습고 한심하고 게으른’
재현하는 경우를 분석해 내었다. 김영훈은 이 프로그램이 현지인들의 삶이 아니라
통해 우리를 체험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체험의 양식은 바로 특수한 역사적 조건과
에 생성된, 외국 문화를 향한 한국인의 사고, 욕망, 느낌이 이야기되고 드라마화되
보여 준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기존
에 의존하기에 특정 문화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 지식, 스테레오타입을 재생산할
있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 과정에서 도전과 성공이라는 주어진 서사구조를 완성시키
기준은 시청자들이 특정 지역, 특정 문화권에 대해 예상하고 또는 기대하는 정형화
임을 밝힌다. 황인성(1999) 또한 타문화에 대해 관음주의 개념을 통해 <도전! 지구
를 분석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가 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오늘날 아직도 미
문대적 문화를 살고 있는 세계 오지의 사람들 문화를 다루고, 그들의 문화는 일반적
문화가 향유되고 유지되는 콘텍스트적 의미를 잃게 됨으로써 단지 원시적인 비문
문화로 재현되어 타자화될 뿐임을 밝혀낸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우리:그들::문명
적인’이라는 상동구조적 이항대립으로 설명될 수 있는 차별적 구조를 지니는데, 이

로
을
들
문
은
주
함
적으로
문화
(Fiske, 19
은 텔레비
하기 때문
사회문화
프로그램
것으로 자
그들을 통
경험에 의
는 것을
지식체계
수밖에 없
기 위한
된 시선입
탐험대>를
개한 전근
으로 특정
명적인 문
화된:원시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회, 민족 집단들의 시각적 이미지들을 물신화한다. 이 과정에서 정상과 일탈적 집단 사이의 권력적 위계관계가 존재하게 된다(황인성, 1999).

임영호(2002)는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에서 지역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을 분석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오리엔탈리즘이 국가 내에서 구현되는 내부 오리엔탈리즘과 흡사함을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중심'의 위치에서 본 '타자/주변'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중심부와 주변,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상징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지역을 낙후된 '시골'로 비하의 대상으로 설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도시/중심이 잃어버린 속성을 간직한 이상향, 즉 '고향'으로 신비화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타자화된 지역을 고향으로서 다시 우리의 일부분으로 통합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지역/시골은 타자로 구성되고 위치지워지면서도 도시/중심이 타자라는 의식을 갖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위장되고 변형된 형태의 타자로 남는다고 임영호는 주장한다.

여기서 타자에 대한 재현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서구적 혹은 제국주의적 특권이 아니라 모든 문화에서 드러나는 정체성 형성의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이창호·정수남, 2002), 타자의 재현 방식은 현실의 존재를 반영하는 방식을 갖기도 하지만, 정체성의 유동성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다. 허구적 드라마를 통해 재현된 정체성에서도 타자화 기제를 발견할 수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 <겨울연가>에 나타난 초국가주의적이고 혼성적인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한부분으로 하지만, 결국 주인공의 그러한 정체성은 부정되고 '한국'이라는 고정되고 경계화된 민족(원천)적 정체성으로 귀환한다. 민족 국가란 개념적 틀에 한정되어 있는 본질주의적 민족 정체성 담론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혼성성은 부정되고 가치 저하되기에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매번 일상생활에서 코리아와 아메리카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한다(박준규, 2003). 또한 정체성의 정형화된 재현은 주체

인종주의를 확산시키는 '백인 유럽인'의 전제 위에서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인과 흑인의 배
(2002). 유럽의 Zee TV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사

다인종의 유럽 또한 전 대륙에 걸쳐
광범위한 유럽문화를 형성하면서 정체성
타적 범주가 재생산되고 있다(Dudrah,

용된 기술들은 이산인들의 소속감에 조응하고, 완전한 남아시아인도 아니고 완전한 유럽인도 아닌 도시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동일시를 자아내도록 하고 있지만, 양쪽의 문화를 도려내어 혼합시킨 것이다. 이러한 연구로 볼 때, 이산의 정체성은 기존의 지역이나 국가를 원천으로 하면서도 세계화라고 하는 맥락에서 새로운 형태의 혼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핀란드의 서로 다른 민족에 대한 뉴스의 재현을 분석하여 정체성, 인종, 지역사이의 복합적 관계를 조명한 Pietikainen & Hujanen(2003)은 정체성 구성이 협상적 과정임을 밝힌다. 이러한 협상은 서로 다른 정체성에 내재된 민족, 지역, 문화의 재현과 관련되고, 담론을 통해 구성된 정체성은 민족과 지역적 차원에서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재현됨을 분석했다. 따라서 정체성의 재현은 미디어의 속성과 정체성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의 협상을 통해 특정한 하나의 형태로 유형화됨을 알 수 있다.

4. 분석결과

1) 토크쇼 방식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러브인 아시아>는 외국에서 이주하여 결혼한 여성(혹은 남성)을 주인공으로 일상 생활에서 겪은 사건들을 미리 영상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구성된 영상을 스튜디오에서 시청하며 답화를 나누는 가벼운 토크쇼 형식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토크쇼가 특정 주제나 이슈에 대해 논쟁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면, 이 프로그램은 미리 촬영된 주인공의 삶을 스튜디오에서 감상하고 해설하며, 주인공이 이국땅에서 겪는 에피소드와 정서들, 가족간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방식이다. 스튜디오에는 남녀 사회자 2명, 연예인 패널 2명, 주인공과 그녀의 가족, 가까운 친지나 지인이 출연하고, 방청객은 이들의 대화에 공감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홍석경(1999)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개인이나 집단이 일상 생활에서 겪은 실제 사건을, ENG나 홈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 극화하여 재구성하되 리얼리티 효과나 오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가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야기 전개방식은 토크쇼 방식이지만, ‘토크’보다는 개인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주축으로 재구성하였기에 ‘토크쇼’ 형식은 ‘리얼리티’를 가미하고 공유하며 객관화하기 위한 장치의 성격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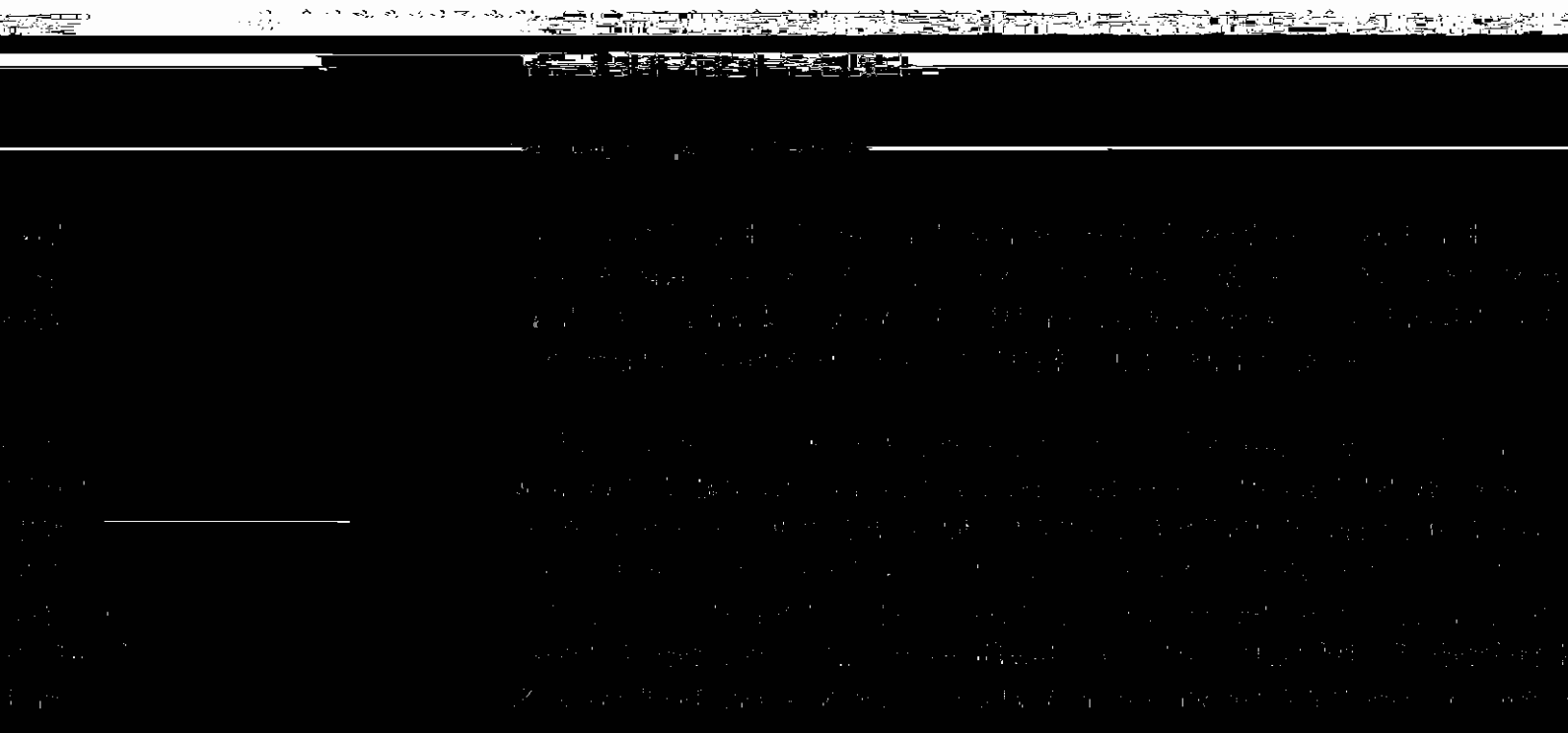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발단한 인물의 가족소개로부터 전개되기 시작한다. 먼저 스튜디오(프로그램의 취지와 주인공과 가족소개: 스토리 전개와 결말을 예상하게 한다)-제1영상(주인공 가정의 일상 생활)-스튜디오(부부의 만남을 운명적인 것으로 의미화한다)-제2영상(주인공의 고국의 정경, 성장과정, 꿈, 그리운 가족)-스튜디오(부부간의 관계의 의미와 연애 등과 관련된 신변잡기)-제3영상(오락적 요소를 가미한 ‘통아시아’라는 코너를 통해 주인공의 고국 인사말 배우기와 특별이벤트)-스튜디오(마을주민이나 동료 등의 지인이 주인공에 대한 칭찬)-제4영상(주인공이 가족에게 보내는 영상메시지를 고국의 가족들이 보고, 스튜디오에서 이를 보며 강조되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스튜디오(가족의 소중함 제시)를 끝으로 가족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다.

프로그램의 이야기 전개방식에서 스튜디오내 ‘토크’는 개별적 영상(4개)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사회자 등과 주인공가족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주제전달 방식, 사

회자와 패널이 미리 살펴본 주인공의 삶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해설하는 방식, 그리고 패널들이 영상을 보며 연출되지 않은 듯이 느끼는 감상을 통해 삶의 애환과 감동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방식의 이야기 전개는 이야기의 서술자가 사회자와 패널이며, 주인공들을 이야기의 소재이자 관찰의 대상으로 위치지운다. 이러한 이야기 전개방식은 주인공 삶의 리얼리티와 결합되어 보여지는 삶의 방식에 가치를 부여하고 동시에 그 삶이 지닌 진정성을 강조하며, 프로그램의 서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삶의 지혜로 부각시키는 작용을 한다.

공영성을 강조하는 기법으로 활용되는 리얼리티를 부각시킨 현실과의 교감은 주인공의 삶과 주변 이야기는 보이스 오버 나레이션을 통한 카메라의 관찰 방식, 리포터의 참여자적 관찰 방식, 주인공의 직접 재연과 직접 나레이션 방식 등으로 영상화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상의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방식은 휴먼다큐멘터리와 오락프로그램들에서 관습화된 방식으로 감동과 웃음을 자아내는 효과를 하고 있다. 오락적 요소와 재미를 가미하기 위해 인기연예인이 주인공의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개입하여 주인공의 고국 인사말을 배우는 과정은 농촌주민들의 순박함과 웃음을 강조하여 감동과 재미를 주고, 프로그램에서 불안정한 현실을 잊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참여자적 관찰자 양식은 타인의 사적 세계의 경험을 현재진행형으로 공유하는 것, 즉각적으로 관련을 맺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이종수, 2005).

<러브인 아시아>는 기존의 휴먼다큐멘터리와 농촌을 소재로 한 오락프로그램의 형식과 토크쇼 형식을 혼합하여 이주자의 삶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지만, ‘이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감동적인 휴머니즘으로 사사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포맷을 통해 인물의 위치 또한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속에서 휴머니즘, 감동,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소재로 변질된다. 텔레비전이 이주자의 사적인 삶의 경험을 ‘체계’안에 포섭시키는 장치로 이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기본 정조는 한국휴먼다큐멘터리의 정



형성을 획득한다. 리얼리티를 강조하며 등장인물은 현실속의 이주여성으로 각인되지만, 그녀들이 속한 삶의 현실은 독자적인 의미를 구축하지 못하고 멜로드라마적 이야기구조내에서 의미를 획득할 뿐이다. 또한,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서 이주한 각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구조를 통해 정형화됨으로써 개별 주인공간의 문화적 차이 또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농촌에 시집온 아시아 여성이라는 동질적인 위치를 갖게 한다.

3) 약화되고 통일된 이주자로서의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은 민족, 지역, 문화, 언어, 종교 등과의 관련성 속에서 분류체계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핵심인 주인공 여성들은 다른 국가출신, 다른 피부색을 지닌 인종, 언어적 능력의 차이, 문화적 차이 등이 강조됨으로써 ‘이산인’으로 정형화된다. 영상을 통해 사실적 요소로 전달되는 다른 피부색, 얼굴모습, 어눌한 말투, 상황과 규범을 넘어서는 행동 등은 보여짐을 통해 그 자체로 이주자를 재현하는 상징이 된다.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적 담론은 이미 다른 피부색에 대해 일정한 시선을 강요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인종개념은 생물학적 특징에 근거한 인종분류와 해당 국가나 사회의 경제력이나 국력을 고려한 사회문화적 인종 서열의 도식이 다시 적용되어 형성된 차별적 이미지이다(한건수, 2003).

그러나, 제작진이 보여주려는 ‘감동적인 가족 사랑이야기’라는 배경은 영상적 소재(피부, 말투, 출신지역의 모습 등)로 보여지는 것 이외에 주인공이 갖는 이주자로서의 정체성 의식을 드러내거나 차별적 시선을 갖게 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지나치게 가족 휴머니즘이 강조되어 이주자로서의 정체성은 고국에 두고 온 ‘또 다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때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출현한 주인공들은 이주한 연대나 장소와 관계없이 모두 아시아에서 온 새댁으로 통일된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이들 주인공들은 각각 13개 국가를 출신으로 한 다문화배경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아시아에서 이주한 ‘우리과 다른 사람’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환원되었다. 이들의 출신국가는 필리핀 3명, 베트남 2명, 태국 2명, 인도네시아 2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몽골, 인도, 캄보디아, 스리랑카, 라오스, 키르기즈스탄, 네팔 등으로 다양한 아시아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물론, 주인공 각자의 고향과 도시, 가족들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낯선 지역을 상징하는 요소들일뿐 ‘감동적인 가족 사랑이야기’구조에서 개별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기 어렵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아시아’를 강조하는 맥락 또한 이들 낯선 곳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 영상을 아시아로 해석할 여지를 준다. 이주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낯선 곳의 영상보다는 오히려 현재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에서의 ‘서로 다름’에서 ‘타자화’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타자화’의 기제는 국가를 넘어서는 이주자로서이기보다는 한국의 중심인 도시가 아닌 시골/농촌/지방에 위치한 이주자라는 맥락에서 더 강화된다.

4) 가족으로 포섭된 이주 여성의 정체성

이 프로그램에서 주인공들은 공동체적 삶이 유지되며 전통적 가족규범과 역할이 작동하는 가족안에 위치한다. 주인공들의 이주는 이주가 아니라 ‘시집은 것’이며, 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아내, 혹은 몇몇한 안주인이자 어머니로의 포섭을 의미한다. 이렇듯 이주여성인 주인공은 시댁의 가족 관계 속에서 ‘호명’될 수 있을 뿐이다. 아내/며느리/어머니이자 농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주인공은 전통적인 아내와 며느리(효행상을 탄, 3회의 사바편 마리랏을 비롯해 농촌에서 모두의 며느리로 위치지워진다)의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고, 이러한 전통적인 역할로 인해 공동체로부터도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인정받는다. 인정과 수용은 주인공의 충실한 가족내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재현된다. 이 프로그램은 남편과의 관계나 아내의 역할, 그리고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지만 이는 재미를 주는 요소로 수용되고, 오히려 남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적인 며느리라는 점을 통해 전통적인 아내와 며느리로 재현한다.

한편, 이 프로그램에서 주인공들이 가족안으로 적극적으로 포섭되는 방식은 가족내 갈등적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가능하다. 한국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가족내 갈등인 고부간의 갈등은 물론 부부간의 갈등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가족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적 요소는 ‘낯선 나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자신이 선택한 갈등과 주인공의 순애보적 가족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남편의 죽음, 시어머니의 투병 등 어쩔 수 없는 갈등일 뿐이다. 가족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적 상황이나 갈등은 ‘가족감동 러브스토리’에서 불필요한 요소이다.

가족으로 포섭된 주인공은 남편과 시어머니 등과 가정내 역할에서는 안정감을 갖지만, 자녀의 교육 등과 관련하여 가족이나 공동체 외부와 관련된 것에서는 무능력한 존재로 위치지워진다. 이러한 것은 가족과 공동체 외부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안정성을 암시한다. 주인공들의 정체성은 혈연주의에 입각한 가족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포섭되었지만, 대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재현된 이주 여성은 개별 국가나 인종에 의한 차별적 시선에 의해 이산인으로 타자성을 획득하기 보다는 오히려 주인공의 정체성을 ‘가족구성원의 역할’로 환원하는 가족이데올로기에 의해 타자성을 획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결혼가정’은 대사회적으로 객체로서 편입된 이질적 가족 단위이지만, 혈연주의에 입각한 가족이데올로기에 의해선 해체될 위기의 농촌 가족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된다.

5. 결론

한국 거주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앞두고,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열린 시선을 갖도록 유도하는 공익적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구성하는 ‘국제결혼가정’의 정체성과 이들을 재현하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는 이산인 소수자에 대한 의미화 작업에 관여하는 대중적이자 공적 담론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이 논문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장르적 관습이 이산인들의 정체성을 재현하는 특성이 무엇이고, 이러한 재현 방식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국제결혼가정의 중심인 이주여성의 정체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국제결혼가정, 이산인 등에 대한 시선과 의미화 실천 방식을 드러

내고자 했다.

분석한 결과 이 프로그램은 토크쇼 방식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형식을 취하며, 서술자로서 스튜디오의 사회자와 패널이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주인공의 삶을 주인공 가족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재현되는 영상의 사실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토크쇼 형식은 ‘리얼리티’를 가미하고 공유하며 객관화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지만, 주인공과 관련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이야기꾼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 전개방식은 주인공 삶의 리얼리티와 결합되어 보여지는 삶의 방식에 가치를 부여하고 동시에 그 삶이 지닌 진정성을 강조하며,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정당화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관습은 기존의 휴먼다큐멘터리와 농촌을 소재로 한 오락프로그램의 형식과 토크쇼 형식에서 차용하여 이주자의 삶을 다루지만, ‘이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감동적인 휴머니즘으로 사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프로그램의 보편적 주제와 이야기구조는 멜로드라마적 성격을 지니는데, 해피엔딩을 목표로 하는 서사구조와 함께 국제적인 이주의 원인을 남녀간의 운명적 사랑으로 환원시켜 수용자로 하여금 실재하는 주인공의 삶에 대해 멜로드라마적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이야기구조와 보편성으로 인해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서 이주한 각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개별 주인공간의 문화적 차이 또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농촌에 시집온 아시아 여성이라는 동질적인 위치를 갖게 한다.

이주 여성의 정체성은 약화되고 통일된 이주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재현되는데, 이는 ‘감동적인 가족 사랑이야기’라는 배경을 통해 가족 휴머니즘이 지나치게 강조되기 때문이며 프로그램 자체가 ‘아시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개별 국가의 서로 다른 차이가 하나의 아시아에서 시집온 여성으로 환원된다. 프로그램의 주인공들은 이주자로서의 타자성보다는 가족으로 포섭된 여성의 정체성이 강조된다. 주인공들은 공동체적 삶이 유지되며 전통적 가족규범과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Dudrah, R.K.(2002) Zee TV-Europe and the construction of a pan-European South Asian identity, *Contemporary South Asia*, 11-2, 163-181.

Durham, M.G.(2004) Constructing the "New ethnicities": Media, sexuality, and diaspora identity in the lives of South Asian immigrant girls,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21-2, 140-161.

Fiske, John(1987) *Television culture*, London: Routledge.

Giloy, P.(1997) Diaspora and the detours of identity. In K. Woodward(ed.) *Identity and Difference*. pp.299-343. London: Sage.

Hall,S.(1997) 'The work of Representation', pp.13-74 in S. Hall(ed.) *Representation: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Sage.

Kaya, A.(2005) Cultural reification in Circassian diaspora: stereotypes, prejudices and ethnic relation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1-1, 129-149.

Martines, D.P.(1997) *Burlesquing knowledge: Japanese Quiz Shows and Models of Knowledge.* rethinking Visual Anthropology, New Haven and London:Yale University Press.

Pietikainen S. & Hujanen J.(2003) At the crossroads of ethnicity, place and identity: Representations of northern people and regions in Finnish news discourse, *Media, Culture & Society*, 25.251-268.

Rivero, Y.M.(2002) Erasing blackness: The media construction of 'race' in *Mi Familia*, the first Puerto Rican situation comedy with a black family, *Media, culture & society*, 24. 481-497.

Woodward, K.(ed)(1997) *Identity and Difference*. London: Sage.

바바 호미(H.K.Bhabha2002)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 소명출판.

박준규(2003) 텔레비전 드라마 “겨울연가”와 디아스포라적 정체성 *한국문화인류학* 36-1호, 219-245.

원용진(2003) 아직 아시아를 말할 때가 아니다-MBC-TV의 아시아 아시아, 프로그램 텍스트 8호.

이수자(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2호, 189-219.

양철호 김영자 손순용 양선화 신봉관 조지현(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6호, 127-149.

이금연(2003) 이주여성의 결혼과 가족,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03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미간행), 21-38.

이석구(2004) 호미 바바의 탈민족주의와 이산적 상상력 《비평과 이론》 9-1호, 157-180.

이종수(2002) 한국 휴먼다큐멘터리의 시대성과 사회성: 다큐멘터리 내용, 형식의 변화와 사회적 맥락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0권 2호, 35-72.

이창호 정수남(2002)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 나타난 근대적 시선과 재현의 정치: 1980년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 관한 역사 및 영상인류학적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5-2, 233-274.

- 임영호(2002) 텔레비전 오락물에 나타난 내부 오리엔탈리즘과 지역 정체성 구성:<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의 텍스트 분석 《한국언론학보》 46-2호, 576-605호.
- 윤지관(2000) 지구화에 대한 고찰: 근대성, 민족 그리고 문학. 《안과밖》 8호, 8-30.
- 전규찬(2005) 소수(자)성, 매체문화연구 진화의 일단 《프로그램/텍스트》 12호.
- 정재철 김송희 제갈춘기(2003) KBS 1TV <아침마당>의 ‘부부탐구’ 텍스트와 수용 분석, 《한국방송학보》 17-1호, 145-176.
- 스터르큰·카트라이트 저, 윤탈진 허현주 문경원 역(2006) 《영상문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북스.
- 한건수(2003)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비교문화연구》 제9집 2호, 157-193.
- 홍석경(1999) 텔레비전 장치와 재연의 재현 양식 《한국언론학보》 43-3호. 395-430.
- 황인성(1999)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의 민속저학적 관음주의와 타문화의 현실구성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 텍스트, 제1호.